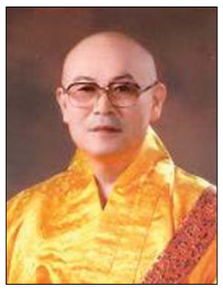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염불신앙으로 불국정토 구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부처님을 염하는 자는 사람 속의 분타리화(分陀利華)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훌륭한 벗이 되어, 도량에 앉아 부처님들의 집에 태어나게 해주느니라."(관무량수경)

대한불교무량종(종정 혜안)은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 염불신앙 종단으로 1999년 4월 15일 서울 종로 무량정사에서 창종했다.


혜안 스님.

본 종단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기화득통 선사를 종조로 삼아 역대 조사들이 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의지처가 될 아미타 천불을 봉안해 불자들의 휴양처와 수도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종단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동행하면서 호국하는 이념 아래 사회에 동참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사상과 이념을 갖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종 직후부터 종단 합동 보살수계식을 정기적으로 봉행해왔고, 불우이웃돕기 경로행사, 월드컵 성공기원대법회 등 다양한 행사와 법회를 개최했다. 종도 한 명 한 명이 인과의 도리를 깨달아 계행을 닦고, 참회하면

역대 조사 전승해온 염불신앙 법맥 계승
불국토 건설 목표 사상·이념 갖고 실천

전승해오던 염불신앙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서원인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염불로 명심견성(明心見性) 정토왕생(淨土往生)을 발원하고,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심(下化衆生心)으로 전법도생(傳法度生) 불국정토(佛國淨土) 호국안민(護國安民)함을 종지(宗指)로 삼고 있다.

무량종은 70여 종단 소속스님을 비롯한 모든 종도들이 행해묘엄(行解妙嚴)과 부처님의 자비원륭(慈悲圓隆)에 대한 교훈을 받들어 상하화합(上下化合)하고자 총본산 칠보정사(경남 하동군 적량면)를 비롯한 전국 100여 사찰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칠보정사는 천불극락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서 지혜를 밝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무량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법회 등을 꾸준히봉행해 물질·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바위 등을 포함한 총본산 칠보정사 성역화 작업을 통해 종단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창종 10주년을 맞이해 계획중인 기초교육원 설립 불사는 앞으로 종단소속 스님과 행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종도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종지종풍 선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055)882-1599

정리=김진성 기자

소처럼 힘찬 발걸음 시작

각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 봉행

각 종단들이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 중흥을 서원하며 새해 종무행정에 본격 돌입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종단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점은 갖고 있기 마련"이라며 "종도의 장점을 인정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스스로 대내외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구랍 23일자로 임명된 신임 고시위원장 동우 스님, 중앙복지원장 혜각 스님, 전통불교문예원장 일운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태고종은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음력 설에 맞춰 봉행 예정인 신년하례법회에 앞서 종의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대대적인 사찰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 종의회는 4일 구인사에서 제14대 개원종회를 열고 종의회 의장에 도산 스님, 승려 부의장에 명구 스님, 신도 부의장에 최인규 의원을 선출했다. 또 총무분과위원장에 화산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에 김형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월 15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된 태고종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

천태종은 또 종의회 전 사령장 전달식을 갖고, 대전 광수사 도정·대구 대성사 도산·부산 삼광사 화산·서울 관문사 영제·인천 황룡사 덕해 스님 등 전국 160여 사찰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5~11일 각 심인당에서 '새해 대서원 불공'을 봉행하고 12일 시무식을 진행했다. '나라의 안녕과 경제발전'을 서원덕목으로 거행한 불공에서는 △인류심성 정화 △경제회복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등을 서원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원송)도 5~11일 전국 각 사원에서 새해 불공을 봉행하고, 회향일(11일) 오후 9시부터 12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을 했다. 총지종은 15일 시무식으로 종무행정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재)일붕선교종은 7일 인천 호불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붕해 스님은 신년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의 걸음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총무원장 화엄, 중앙종회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도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감사원장 석성, 총무부원장 법성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조동종(총무원장 덕우), 한국미륵불교(총무원장 송봉)도 각각 5일과 4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는 등 불교계 각 종단이 2009년 새해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종도 행정·사법 상담 및 민원 해결"

태고종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예정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종도들의 행정·사법 권익향상을 위해 '(가칭)종도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는 앞으로 사찰 소재지의 재개발이나 이전, 보상 등 사찰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무상으로 상담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 이를 원만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행정·사법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식기구로 발족하기 위해 내부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의 활동을 통해 종도들의 법·제도적 서비스를 강화하면 종도들의 수행환경이 더 여법하게 조성돼 종단의 대 사회적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충처리위 초대 위원장에는 지홍 스님(안정사), 부위원장에는 총무부장 묵원 스님, 능해 스님(前 교무부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02)739-3450 (내선 117번)

김진성 기자

"마음자리 잘 지켜 실천수행하라"

천태종 재가불자 1182명 동안거 해제

1월 4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 '제96회 재가불자 동안거 해제식'.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한 달간의 안거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운덕 대종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회 재가불자 동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증명법주 도용 종정스님은 해제 법어에서 "수행자는 계를 어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며 "부처님 법으로 제대로 듣고 보고,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며 "안거를 마친 후에도 마음자리를 잘 지켜 실천수행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해제사를 통해 "불자들이 한 달 동안 일심으로 용맹정진해 생멸의 짐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한 달 안거에 만족하지 말고 늘 하심을 실천해, 상불경보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여정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인사에서 구랍 5일 시작한 재자불자 동안거는 처사 243명, 보살 939명 등 1182명의 천태종 신도들이 참여했다. 이번 해제식에는 안거 불자들을 대표해 구미 금룡사 김정수·영춘지회 김경시·서울 관문사 권정원·대구 대성사 구후선·부산 광명사 구정화·대전 광수사 장자현 불자가 도용 종정스님으로부터 이수증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에 법선·공암 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행득)가 공석이었던 부회장에 법선 스님(자비정사 회주)과 공암 스님(연화사 회주)을 임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구랍 23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08년도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2008년 사업결산 및 신임간부 임명을 위해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처장에 지명스님(보타사 주지), 총무국장에 행담 스님(보현암 주지), 사무국장에 지혜 스님(불정사 주지), 서울지역장에 묘련 스님(약사암 주지)을 각각 신규 임명했다. 김진성 기자

제4회 종교사회복지대회 시상

복지부장관상 전승범 관장·복지대상 수상 용경숙 팀장

진각복지재단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전승범(사진 왼쪽) 관장과 의정부시 곰두리네집 용경숙(사진 오른쪽) 팀장이 구랍 29일 여의도 모나크부페에서 열린 '제4회 종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김득린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운희 대표(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변웅정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전에는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대)가 '인공임신중절현황과 생명존중'을 강연했다. 김진성 기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시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금성농협에서 만든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조 : 금성농협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